



전주교대, 4학년 실무·실습교육 성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4주 간 4학년 재학생의 실무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습생 277명은 5개의 실습 협력학교(전주부설초, 군산부설초, 전주인봉초, 전주하늘초, 전주효천초)에서 실무와 수업 실습의 경험을 쌓고, 실습 기간 중 현장학습에도 참여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실무실습은 실습생들이 교직 실무에 직접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학교와 학급 사무를 지도하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했다.

실습 기간 중 전주교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은 실습생들의 실습 참여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지도·격려하기 위해 협력학교를 방문했다.

박병준 총장은 "4학년들의 실무실습은 교육현장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현장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와 태도를 보여줘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찾아가는 체험교실 진행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오는 7월까지 '찾아가는 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을 통해 8회분 전량 매진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추진하는 이번 체험행사는 이동이 어려운 방과 후 어린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체험행사로 남원시 공동육아 나눔터 5개소와 아이맘행복누리센터에서 진행된다.

체험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생곤충과 세계의 곤충들을 직접 관찰하고 만드는 △곤충표본 교육, 전통공예인 자개 장식으로 꾸며보는 나만의 △자개 거울 꾸미기와 교육장이 보유한 살아있는 동물과 곤충 등 생태자원을 통해 관찰력과 호기심을 자극해 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추후 협의를 통해 체험 장소와 시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동이 번거로운 부모님이나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백두대간전시관이 되어 새로운 추억과 경험을 드리고 싶다"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문화행사 개최

순창시장상인회(상인회장 리병호) 주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가 지난 16일 순창시장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여파와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라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개최된 이날 행사는 장구, 난타, 색소폰, 북춤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초청 가수 공연,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재미를 더했다. 아울러 관내 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리병호 상인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이 크게 위축되고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읍 남계리 800-4번지 일원에 위치한 순창시장은 1923년 개설하여 이어져온 역사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현대식 구조물로 지어진 다른 지역 시장들과 다르게 순채촌, 어물전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왔다. 순창군과 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전북대병원 최정숙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주관하는 제8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무기록팀 최정숙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의무기록팀장으로 근무 중인 최정숙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가 단위의 질병 조사 및 통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망원인 보완조사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 팀장은 영아사망률과 출생전후기 사망률 및 모성사망률의 지표과정에서 통계청-보건복지부간 일원화 작업에 일조한 공로로 지난 2013년 통계의 날을 맞아 통계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정숙 의무기록팀장은 "의무기록팀은 진료지원 부서로서 진료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변화하는 의료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정읍시 공무원들, 일손 부족 농가 돕기 실천

정읍시 공무원들이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회계과와 장명동 주민센터 직원, 장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은 17일 구명마을 오디 농가를 방문해 오디 수확 작업을 도왔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급격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디 수확 등 농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업 도구와 생수, 간식 등도 직접 준비했다.

같은 날 영일면사무소 직원 10여 명은 매실 수확기를 맞아 운학마을 매실 재배 농가를 방문해 매실 수확에 동참했다.

시 관계자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 학술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의생명연구원 소화기내과 실험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소화기내과 실험실은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제5회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종양괴사인자 유사 세포사멸 유도 단백질 반복 투여를 통해 획득한 대장암세포의 내성과 암출기세포능에 관한 연구'(Acquired tumor necrosis factor-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 (TRAIL) resistance by repeated application promotes colorectal cancer stemness)의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학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연구팀은 TRAIL 특이적 내성 관련 후보 유전자를 선별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유전자 조절을 통해 TRAIL 내



성 극복 연구를 진행해 추후 신생 항암요법을 개발하고 임상 시험에까지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남원시는 지난 15일 제5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자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였다.

구축사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및 보건복지 분야 통합사례관리, 주민참여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5차 실무자 연찬회를 통해 지역복지현안업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통합사례관리 실제 사례를 발표(case study)하는 등 사례관리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하 남원시 희망복지지원계장은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끈임 없는 자기개발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편한숲 어린이집, 유아동주민센터에 놀이자료 기부

전주시 덕진구 유아동(동장 최명환) 국공립 이편한숲 어린이집(원장 윤은영)은 지난 16일 유아동주민센터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지원자료 30꾸러미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놀이지원자료는 "제2회 이편한숲 당근마켓" 나눔을 실천하는 멋진 사람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구매한 놀이지원자료를 행복주머니에 담아 전달했다.

이날 기부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물품 기부와 더불어 유아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풀무원 YG디자인그룹, 호성신원, 행복한 교육사가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윤은영 원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멋진사람 되기 프로젝트가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아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자연 속에서 신나게 놀이할 수 있는 유아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인후3동새마을협, 농가 일손 돕기에 '구슬땀'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는 지난 17일 완주군 화산면에 소재한 한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협의의 회원 20여 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산면에 소재한 양파 재배 농가를 방문해 양파 수확에 손을 보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회원들이 간식, 음료 및 장갑 등 작업도구를 직접 준비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별히 노력했다.

황승일 회장은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농촌 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작은 봉사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산동면, 마을복지계획수립 워크숍 개최

남원시 산동면(면장 고홍석)은 지난 16일, 면 회의실에서 산동면 지사협과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마을복지계획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복지계획 수립 워크숍 1차를 진행하였다.

마을복지계획수립 워크숍은 권선필 교수(남원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마을복지계획단의 필요성, 지역주민의 마을복지계획수립 개요와 현황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가 더욱 확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마을복지계획단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마을복지계획단의 역할을 토포하며 나갈 것을 다짐하며 마을복지계획수립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복지자원 발굴 방안 등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내었다.

고홍석 산동면장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선)은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5~7월까지 3개월 간 매주 2회 저녁 시간을 이용해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다. 이에 따른 다양한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다문화가정의 지원망이 더욱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기 연습반 △컴퓨터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왕초보 컴퓨터 교실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세계 요리 교실 체험 교실 등이 있다.

무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개인 역량 개발 및 취업 활동 경쟁력 강화, 자녀의 긍정적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동선 교육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무주=전문선 기자